

이강인 6호 골...올해의 미드필더 후보

프리메라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6골 4도움'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 올라

최근 물오른 기량을 뽐내는 한국 축구의 차세대 간판 이강인(마요르카)이 리그 6호 골을 터뜨리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진출 후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달성했다.

이강인은 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요르카의 에스타디 마요르카 스포츠에서 열린 2022-2023 라리가 32라운드 아틀레틱 빌바오와 홈 경기에서 후반 13분 선제골을 넣었다.

하프라인 아래 왼 측면 지점부터 상대와 경합을 이겨낸 후 공을 몰고 올라온 이강인은 반대 측면으로 넘어가는 정확한 전진 패스를 공급한 후 페널티 박스로 뛰어갔다.

이어 아마스 은디아에가 문전의 베아트 무리키에게 크로스로 전달했고, 무리키가 뒤로 흘러준 공을 이강인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의 올 시즌 리그 6번째 득점이었다.

31라운드 헤타페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첫 멀티골을 폭발한 이강인은 최근 3경기 3골의 상승세를 보이며 라리가 입성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6골 4도움)도 작성했다.

우리나라 선수가 라리가에서 공격포인트를 한 시즌 10개 이상 만든 건 이강인이 처음이다.



이강인이 2일 스페인 마요르카의 에스타디 마요르카 스포츠에서 열린 2022-2023 라리가 32라운드 아틀레틱 빌바오와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팀 동료 베아트 무리키와 포옹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득점을 지치지 못하고 종료 직전 아나니 윌리엄스에게 페널티킥으로 동점 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선제골의 '기점'과 '마무리' 역할을 동시에 해낸

이강인에게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점은 양 팀 통틀어 최고인 8.42의 높은 평점을 줬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돔도 8.2점을 줬는데, 이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드리블 돌파를 6차례 시

도해 모두 성공했고 그라운드 경합에서도 15회 중 11회를 이겨냈다.

왼쪽 미드필더로 나서 측면, 중앙을 부지런히 오가던 이강인은 후반 40분 안토니오 산체스와 교체됐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이강인을 향해 홈팬들은 아낌없는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이강인의 맹활약에 승리를 눈앞에 둔 마요르카는 후반 추가 시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이니고 루이스 데갈라레타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되면서 실점 위기를 맞았다.

키커로 나선 윌리엄스가 침착하게 성공하며 승점 3이 아닌 1을 챙긴 마요르카(11승 8무 13패·승점 41)는 리그 12위에 자리했다.

빌바오(13승 8무 11패·승점 47)는 7위에 올랐다.

최근 맹활약하고 있는 이강인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가 뽑는 '올해의 미드필더' 후보 18인에 이름을 올렸다.

라리가 사무국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022-2023시즌 '올해의 팀'에 오를 후보 47명의 선수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공격수가 11명, 수비수가 13명이다. 미드필더와 골키퍼는 각각 18명, 5명이다.

이강인은 세계 정상급 중원 자원으로 꼽히는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이상 레알 마드리드) 등과 미드필더 부문에 포함됐다.

우루과이의 간판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및 대결에서 도발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등 이강인과 '악연'으로 언급되는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 마드리드)와도 경쟁한다. /연합뉴스



김하성

김하성 결승 스리런 홈런 MLB 통산 100타점 돌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는 한국인 빅리거 김하성이 19경기 만에 홈런 손맛을 봤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 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 홈 경기에서 5회 6-3으로 팀에 다시 리드를 선사한 3점 홈런을 쳤다.

3-3으로 팽팽하게 맞선 5회 2사 1, 2루에서 세 번째 타석을 맞이한 김하성은 볼 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신시내티 원수 투수 알렉스 영의 체인지업 실투를 놓치지 않았다.

김하성은 오른쪽 무릎을 굽히면서 한복판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왼족 담을 넘어가는 홈런으로 연결했다.

타구 속도는 시속 101.2마일(약 163km)로 나왔고, 왼족 펜스를 살짝 넘어간 타구 비거리는 108m로 측정됐다.

김하성의 홈런은 시즌 3호로, 지난달 10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 이래 22일 만에 터졌다.

빅리그 3년 차로 전반기까지 통산 타점 99개를 기록한 김하성은 이 홈런으로 3개를 보태 102개로 타점 수를 늘렸다.

김하성은 이날에는 7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1회 내야 땅볼로 물러난 뒤 2-3으로 추격하던 4회 선두 타자로 나와 시원한 좌선상 2루타로 동점의 포문을 열었다.

김하성은 곧바로 타진 트리트 그리섬의 2루타 때 홈을 밟아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김하성은 4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으로 경기를 마치고 타율을 0.209에서 0.222(90타수 20안타)로 끌어 올렸다. /연합뉴스

KIA, 푹푹 뭉친 팀워크로 '자신감 UP'



'팀워크'와 '팬들의 열정'으로 만든 짜릿한 스윙의 여운은 길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주말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싸늘이 3연승을 거두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1위를 달리고 있던, 타격 1위 팀과의 승부였지만 KIA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3승을 모두 챙겨왔다.

김도영과 나성범의 부상으로 고민 많았던 4월 마지막 순간을 '팀워크'로 빛낸 KIA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5월을 열었다.

스윙의 시작점이었던 이우성은 "우리가 푹푹 뭉쳤다. 앞으로도 계속 뭉쳐야겠다"며 화이팅을 외쳤다.

이우성은 지난 28일 2-3으로 뒤진 8회초 대타로 나와 이정용의 5구째 직구를 좌중장 담장 밖으로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KIA는 4시간 14분의 연장 11회 승부 끝에 4-3 승리를 거뒀다.

이우성은 "직구가 워낙 좋은 선수라 대타로 나가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공이 가운데로 하나 몰렸고 운 좋게 맞아졌다. 넘어간 줄 몰랐다. 2루 돌고 나서도 공 찾았었는데 심판의 사인을 보고 홈런이라는 걸 알았다. 팬들이 환호해주셔서 감사했다"며 "처음 잠실에서 쳐봤다. 잠실에서 홈런 한번 치는 게 소원이었다"고 웃었다.

또 "감동넘치게 웃으면서 나가라고 했을 때 마음 편해져서 나도 웃으면서 들어갔다. 지고 있

LG 원정경기 싸늘이 3연승 밝은 표정으로 5월 열어

는 상황이었지만 팀을 이끌어주시는 감독님도 웃으면서 내보내주시는 데 거기서 내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며 "형우 선배님이 최고참으로 끝내기 홈런 치고 나서 그 이후로 우리도 하나로 뭉친 것 같다"고 팀워크의 힘을 이야기했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팬들도 10번 타자로 함께 뛰었던 순간이었다. 앞선 주말 두 경기에는 2만 3750명이 입장하면서 매진 사례를 이뤘다. 앞선 28일에도 평일이었지만 2만2695명이 입장하는 등 많은 KIA 팬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 열전을 펼쳤다.

만원 관중 앞에서 9회초 썬기 스리런을 날린 소크라테스도 그라운드를 물든 상황을 떠올리면서 감탄사를 내뿜었다.

소크라테스는 "잘 쳐야겠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집중했다. 잠실에 KIA 팬들이 워낙 많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는데 열정적으로 환호해주셨다. 대단하고 굉장한 경험이었다"고 감탄했다.

새 팀에서 첫 잠실 만원 경기를 경험한 포수 주효상도 "가을 야구를 하는 느낌이었다. 많은 팬들 앞에서 시합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설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긴장도 많이 됐지만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나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최지민은 만원 관중 앞에서 그 꿈을 이뤘다.

28일 2-3으로 뒤진 1점 차 상황에서 2사 1·2루에서 오스틴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최지민은 29일에는 5-0으로 앞선 7회 무사 만루 위기 상황에서 출격했다. 첫 타자 문성주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뒤 볼넷과 우전안타로 실점은 했지만 김현수를 병살타로 처리하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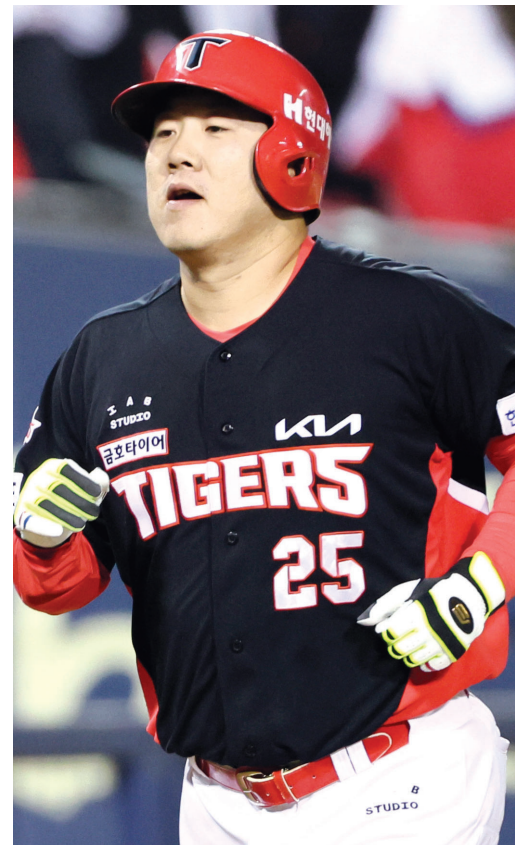
최지민은 "첫 번째 경기는 투아웃 상황이라 한 타자만 생각하고 잡겠다는 마음이었다. 두 번째 경기는 홀드는 했지만 아쉬웠다. 앞에 있는 주자들을 불러들인 게 아쉬웠다"면서도 "감독님이 시즌 전에도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플레이하라고 하셨다. 그 생각하면서 내 공 던진다는 마음으로 했던 게 좋았다. 감독님이 믿어주시니까 올라간 것이고 관중이 너무 많으니까 긴장보다는 재미있었다. 즐겁게 공 던지고 내려왔다. 야구가 너무 재미있고, 팀이 계속 이기니까 좋았다"고 웃었다.

관중석 뜨거운 응원 속에 최지민은 야구 인생 처음으로 전광판에 150km를 찍기도 했다.

최지민은 "상상도 못했다. 꿈의 스피드였는데 찍어보니까 기분이 좋았다. 평소와 똑같았는데 관중도 많고 하나가 힘이 더 나왔던 것 같다. 팬들의 응원에 힘이 났다"고 이야기했다.

28일 경기에 출격했던 변우혁에게 이날 연장 승부는 야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기이자 가장 행복했던 경기 중 하나가 됐다.

변우혁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경기 끝나고 나니까 몸이 진짜 힘들었다. 야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중간에 나가서 5이닝 밖에 안 뛰었는데도 너무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 많이 했다"



이우성

며 "팬들이 응원 불러주셨을 때 너무 좋았다. 10시에 램프 꺼지고 매장 해주실 때 좋았다. 그래서 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우혁은 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앞서 또 한번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감격했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는 변우혁을 응원하는 커피차가 등장했다.

변우혁은 "커피차 보지만 하다가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더 잘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

2일 서울 중구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헌액 대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순호 수원FC 단장,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아들 박성민씨, 김장남 전 울산 감독의 손자 김민석씨,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이동국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플라나·발디비아 K리그2 10라운드 베스트 11



플라나(왼쪽)와 발디비아.

전남드래곤즈의 플라나와 발디비아가 '베스트 11'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일 K리그2 10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와의 홈경기에서 2-1승리를 거둔 전남에서는 플라나와 발디비아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플라나는 이날 1골 1도움의 활약을 하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전반 21분 임찬윤의 선제골을 도운 플라나는 1-1로 맞선 후반 16분에는 발디비아의 패스를 받아 헤더로 결승골을 장식했다.

환상적인 호흡으로 팀의 연패를 끊고 승리를 합작한 플라나와 발디비아는 나란히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10라운드 MVP는 김포FC 파블로의 차지가 됐다. 파블로는 김천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김포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김포는 이날 승리로 6승 3무(승점 21)를 기록 K리그2 1위로 올라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